

글로벌시대에는 융합형 인재를 키우자



김영길 총장
한동대학교
054-260-1111

모항공사의 기념식으로 비빔밥이 인기를 끌고 있다. 어떤 이는 한국의 비빔밥을 보면 이해가 안 간다고 한다. 종류대로 잘 담아 모양도 참 좋은데, 이것을 갑자기 마구 비벼서 먹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 종류대로 담은 내용물을 조절할 수도 있고, 조리의 최종단계인 비빔을 수요자에게 맞기는 면에서 비빔밥은 생산자와 수요자가 함께 한다는 점에서 앨빈 토플러가 강조하는 생산과 소비가 함께하는 프로슈머(Prosumer) 시대의 상품임에 틀림없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류에는 너무도 깊은 실제적 바탕이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다.

교육도 생각해 보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식의 원료를 공급하지만 최종은 피교육자가 이를 모두 버무려 자신만의 전문성을 들어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자가 제이무리 좋은 원료를 공급해도 이를 피교육자가 잘 버무리지 않으면 맛이 제대로 안 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교육은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긴밀하게 만나서 융합되는 예술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시스템은 지식의 원료를 주입하는 입력(Input) 중심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지식기반의 새로운 시대는 프리드만의 평평한 지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모든 분야의 벽이 허물어지고, 민족적 장벽이 거두어져서 융합되는 시대이고, 이 시대는 융합의 다양한 결과물이 세계 속에 우뚝 서게 되는 것이다. 이제 입력의 시대에서 출력의 시대로 교육의 중심을 옮겨야 할 때이다.

새로운 시대는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인재를 요청한다. 그래서 다양한 창의성 증진 교육프로그램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창의성은 누가 판단 판단 말인가? 그것은 그 시대가 요청하는 기발한 결과물을 말하는 것이지, 성격 괴팍한 괴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혁신을 논하면서 스펀터나 드러커도 창의성을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혁신적 아이디어가 시장에 혁신적 상품으로 나타나기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할 줄 아는 인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시장에서 인정 받는 혁신적 제품이 글로벌 시대의 결과물이다. 이 시대에는 새로운 발명이나 발견보다는 기존의 원료를 잘 섞어서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줄 아는 비법의 기술이 중요하다. 그러할 때 세스 고딘이 역설한 것처럼, 무엇인가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괄목(remarkable)할 만한 것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 글로벌 시장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구글이나 월마트가 그 좋은 예이다. 이미 있는 지식이지만 이를 어떻게 융합하느냐에 따라 기존의 글로벌 시장은 오통치게 된다. 이제 시장과 과학적 원리는 동시에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양방향 발전 구조를 갖게 되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비빔밥처럼 섞이는 새 시대가 요청하는 융합은 단순히 응용 학문의 수평적 연결로 이루어질 일이 아닐 것이다. 핵심 원료를 제공하고 이를 배합해야 한다. 따라서 과학기술교육에 인문, 예술의 원료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때 우리는 글로벌 시장을 제패할 창의적 인재를 마련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아이디어를 시장까지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끌고 갈 앙트로프러니어 (Entrepreneur, 기업가)교육을 해야 한다. 이는 이들에게 비즈니스와 법의 요소를 융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개별 지식의 양이 아니라, 이를 섞어내는

비법이 아닌가? 언제인가 쓸지도 모른다고 배워두는 일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오히려 탁월한 비전과 목표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앙트로프러니어 정신(Entrepreneurship)을 공학도에게 불어넣어야 한다. 이러한 앙트로프러니어들 만이 소규모의 개선을 넘어서 위대한 혁신을 이루어 낼 것이다. 전쟁의 폐허에서 오늘에 이르는 길에서 우리에게 스스로 성장한 탁월한 앙트로프러니어들이 있었던 행운이 있었다. 이제 교육은 개별분야의 전문가를 키워내는 것과 더불어 이를 지휘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앙트로프러니어(Entrepreneur)를 키우는 교육을 준비해야 한다. 글로벌 시대 혁신의 지휘자인 앙트로프러니어(Entrepreneur)는 결국 자신의 전공분야에 깊이를 두고 인접 영역을 두루 아는 T자형 인간이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국제적 역량을 갖춘 장인 공(工) 자형 인재가 된다면 금상첨화이다. 이러한 교육을 위해 우리는 테크놀로지와 비즈니스와 법을 융합하는 혁신적인 융합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때 글로벌 인재는 시장과 기술을 융합하는 프로슈머(prosumer)로서 사회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합법적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프리드만이 주장한 평평한 세계를 리드할 글로벌 인재의 양성은 학문의 벽을 헐고 융합하여 새로움을 끌어내는 융합의 미학에 근거한다.

기술표준 2008. 1

